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 우 진
()

박 경 숙*
()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용어: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Andersen 행동모델, 자립생활패러다임

본 논문은 강우진의 박사학위논문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쓴 논문입니다.

* 교신저자: 박경숙, 경기대학교(kspark@kyonggi.ac.kr)

■ 투고일: 2011.4.21 ■ 수정일: 2011.6.15 ■ 게재확정일: 2011.6.17

I. 서론

최근 유전적 영향과 임신 및 출산 전후의 감염과 중독, 환경적 영향에 의한 장애출현율의 증가와 산업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시력제한으로 인하여 활동을 수행할 때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2,429,547명이고 이 중 시각장애인은 241,23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에 1급 장애인은 220,500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등록 시각장애인 중 1급은 33,659명으로 전체 시각장애인의 13.9%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일반장애인보다 1급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때 장애정도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a).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손상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손상이 주는 활동과 참여의 제한이 일상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하거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더 크다. 2009년 현재 시각장애인 중, 재가 시각장애인은 219,551명으로(보건복지부, 2010a) 시각장애인 중 91%나 되는 대부분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시각장애인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이동(보행), 문서적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등의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크다. 김광석(1994)은 시각장애인의 가족에게 시간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특수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장애의 개념이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잔존기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개별적 모델에서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제반 환경이나 사회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모델로 바뀌고 있다(김용득, 2002). 이에 따라 장애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도 의료적 처치, 신체적·정신적 기능감소와 결함의 극복, 잔존능력 활용과 기능수준 향상을

강조하는 재활패러다임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에 의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탄생시켰으며, 그 서비스의 중심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서울시의 한 구에서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영역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2005년 4월부터 10개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 공식적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전국 434개 기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구는 아직 매우 적은 수에 머물고 있다. 2009년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7,818명으로(보건복지부, 2010b) 전체 등록장애인의 1.1%, 1급 장애인의 12.6%에 머물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구가 적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격을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에 있다. 그러나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Askheim, 1999, 2003; Caldwell, 2007) 활동보조서비스 제도(Benjamin, 2001; Hagglund et al., 2004), 활동보조서비스 욕구나 이용(LaPlante et al., 2002; LaPlante et al., 2004; Sullivan, 2007),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Glazier, 1999; Squillace, 2000), 활동보조서비스 성과(Dejong et al., 1992; Beatty et al., 1998; Benjamin et al., 2000; Acree, 2002; Al-Rashed, 2003; Flanagan, 2005; Clark et al., 2008), 활동보조서비스와 여성주의 관점(Chait, 2007)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익섭 외, 2008),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이익섭 외, 2009), 활동보조서비스 평가와 성과(김경미, 2004, 2005; 이익섭 외, 2007; 전정식, 2008),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김슬기 외, 2008)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주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과나 활동보조서비

스로 인한 삶의 변화와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것을 생각해볼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적은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구성요소를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다시 분류하여 각 요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면 활동보조서비스가 좀 더 형평성 있게 시각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활동보조서비스 개념과 서비스이용모델

활동보조서비스란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s, 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s, IADL) 등 신체 유지 활동과 지역사회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도움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목적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지원, 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로 이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b).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점수에 따라 월 40~100시간(독거특례자는 최대 180시간까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b). 장애인들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전자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아직 고유한 모델이 개발된 것은 없다. 외국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 중에는 Purola(1972)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신체적 욕구, 질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Antonovsky(1972)의 모델처럼 병의 유무, 질환에 대한 인식수준, 의료인과의 친숙함을 포함하는 주요 요인(host factors),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기관과 환경요인(agent and environmental factors)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다. 또한 Rosenstock(1974)이나 Glanz(2002)가 소개하는 것처럼 질환이 주는 위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대응기제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동기 등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강조하는 보건의료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개인의 특성들, 그 중에서 특히 심리적 요인과 질병수준의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고, 환경요인도 보건의료시스템과 문화적 요인 같은 거시적 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이 형평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델들이다.

Andersen(2008)의 보건의료서비스이용 행동모델(behavior model)은 개인특성과 환경적(contextual) 특성을 둘 다 고려하여, 개인과 보건의료체계 등의 환경을 함께 보고, 각 특성에 귀속요인(predisposing), 자원요인(enabling), 욕구요인(need)을 포함시켜 보건의료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개인특성에서의 귀속요인이란 개인이 병에 걸리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연령, 성, 교육수준, 보건의료에 대한 신념(beliefs) 등과 같이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의미한다. 자원요인은 소득, 의료보험 종류 등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도를 높이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욕구요인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등 실제적으로 나타난 보건의료욕구를 의미한다. 환경적 특성에서 귀속요인이란 보건의료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역의 연령분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그 지역의 정치적 관점이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지도 등을 의미한다. 자원요인이란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재정, 조직, 인력이나 전달체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욕구요인이란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질과 사망률, 질환율 등 주민의 보건지표 등이다.

Andersen(2008)의 행동모델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그 중요성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의 형평성을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귀속요인이나 욕구요인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이 결정되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형평성이 높은 것이고, 사회구조나, 보건의료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원요인에 의해 결정되면 형평성이 낮은 것이다.

Sullivan(2007)은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연구에서 Andersen의 행동모델을 사용하여 설명변수들을 찾았다. 그녀가 이 모델을 이용한 이유는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dersen의 행동모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는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해원(1995), 윤현숙(2001), 이가옥·이미진(2001), 박경숙(2003), 강유진·강효진(2005), 임연옥·윤현숙(2009), 최승아(2009), 이기영 외(2010), 이주재·김순규(2010) 등의 연구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는 연구로 Andersen의 행동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주재·김순규(2010)가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것과 최승아(2009)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가 노인의 복지서비스이용을 설명하는 연구들이었다. 특히 이해원은 가족수발과 관련된 요인들을 삽입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연구 중 Andersen의 모델을 사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김슬기 외(2008)이 인구사회영역(성별, 나이, 독거여부)외에 운동영역(식

사하기, 개인위생관리 등)과 인지영역변수들(이해하기, 표현하기 등), 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영역변수들(옷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영역변수들(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등)로 분류하여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측면의 변수들을 주로 설명변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익십 외(2008)는 장애인에게 하루 평균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욕구를 정의하여 이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능 및 장애요인과 배경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배경요인에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의 개인요인과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측정된 태도, 그리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등을 포함시킨 환경요인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의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설명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둘 다 고려할 수 있고, 각 특성별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Andersen의 행동모델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장애인,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활동보호서비스이용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비슷한 재가보호(home care)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인들, 특히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보호 연구를 한 것 중에서 앞의 이론적 틀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결과들을 검토해보고, 소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가보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면 Coughlin(1992)과 Soldo 외(1989)는 연령이 재가보호(home car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식적 재가보호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Kadushin(2004)이 1989년부터 1996까지의 재가보호에 대한 137개 연구를 검토한 문헌연구에 의하면 이중 59%연구에서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상충적이다. Kadushin(2004)의 문헌연구에서는 성별변수를 포함한 40개의 공식적 재가보호이용연구에서 45%만이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llivan(2007)도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별의 경우 공식적 재가보호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적으로 나타나나 대체로 여성이 공식적인 재가보호서비스를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 Kadushin(2004)의 문헌연구에서는 23개의 학력을 포함한 문헌연구 중 39%에서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ndersen 외의 연구(2003)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식적 재가보호의 이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Kadushin(2004)의 문헌연구에서는 18개의 결혼상태를 포함한 연구의 28%에서 결혼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상태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결혼한 경험이 없거나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는 노인들이 공식적 재가보호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결혼한 노인들이 재가보호를 더 선호한다는 상충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원요인으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변수에 대해 Kadushin(2004)의 문헌연구는 24개의 연구 중 42%에서 경제적 능력이 공식적 재가보호서비스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공식적 재가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욕구요인은 건강이나 질병상태이다. 보호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이나 질병상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능상태, 만성질환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Kadushin(2004)의 문헌연구는 53개의 연구 모두가 욕구가 클수록 공식적 재가보호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적 특성 요인 중 주부양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부양자의 욕구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adushin(2004)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이 요인을 포함한 9개의 연구 모두 주부양자의 욕구가 클수록 보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부양자의 욕구는 정서적 욕구, 신체적 욕구 등으로 구분되어 파악되고 있다. Lyons과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도 주부양자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보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재가보호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적다. Askheim(1999)의 연구와 Muramatsu & Campbell(2002)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장애인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이 서비스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skheim(1999)은 노르웨이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젊고, 더 높은 교육을 받았고, 장애인조직참여에 더 활동적인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스웨덴에서의 결과도 이와 비슷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신경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애인보다 고용율이 더 낮았고 정부의 소득보장급여대상자가 더 많았다. 그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Muramatsu & Campbell(2002)는 미국 70세 이상 노인의 공식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연령, 인종, 결혼상태, 자녀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의료급여대상여부 등 이라고 밝혔다.

환경적 특성인 주부양자의 특성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Caldwell(2007)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소비지주도(consumer-directed) 활동보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재정자원의 통제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가족주의를 지적하였다. 또한 Askheim(2003)은 지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가족이 서비스관리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책에 대한 연구나 활동보조서비스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드물다. 김슬기 외(2008)의 연구와 이익섭 외(2008)의 연구는 드물게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욕구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 두 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의 기능과 장애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적 환경과 같은 환경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슬기 외(2008)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욕하기, 이해하기, 기억력, 옷갈아입기, 약챙겨먹기 등의 욕구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하기의 기능이 높을수록 서비스 지원시간이 많았고, 목욕하기, 기억력, 옷갈아입기와 약챙겨먹기의 기능이 낮을수록 지원시간이 많았다. 이익섭 외(2008)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능 및 장애요인 중에 만성질환

여부와 전신마비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 물리적 환경의 어려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 그 요인들을 Andersen의 행동모델에 의해 분석한 것도 드문 것을 선행연구결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행동모델에 입각하여 알아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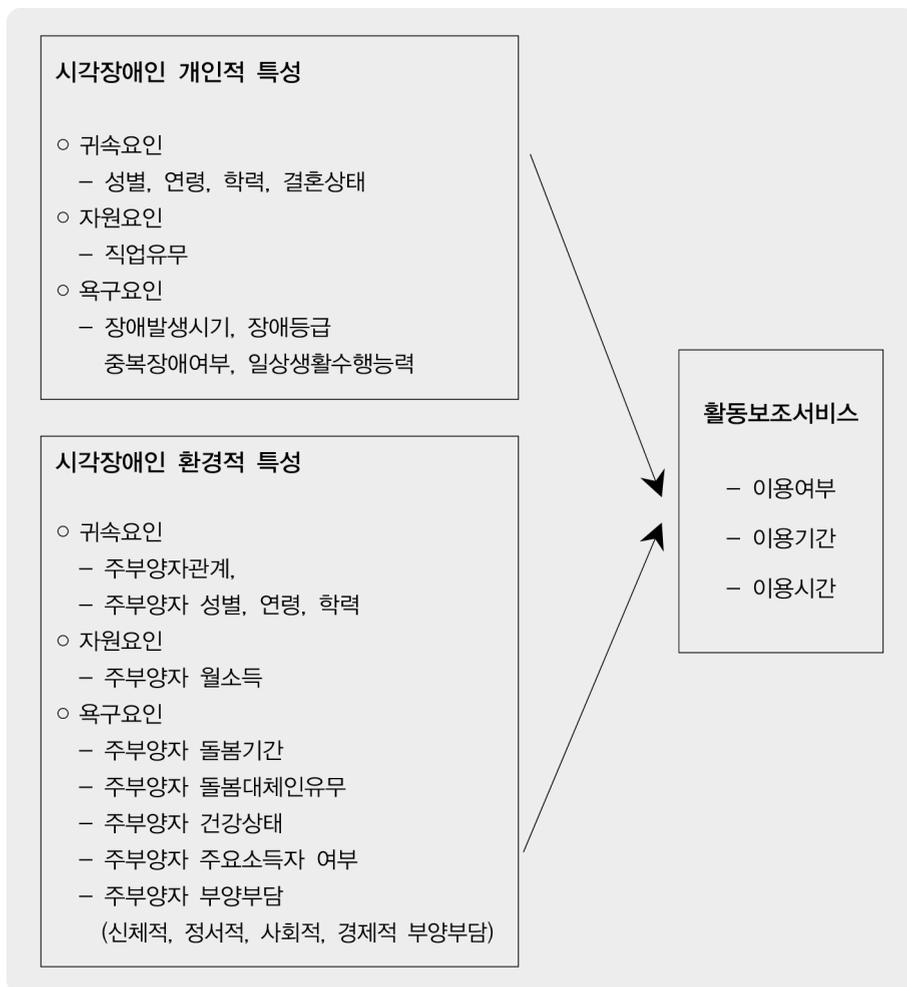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나.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다.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가설

- 가.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과 환경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과 환경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과 환경적 특성(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위의 연구모형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은 시각장애인의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귀속요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가능하

게 하는 경제활동여부를 나타내는 자원요인, 그리고 장애등급, 장애가 발생한 시기, 중복장애여부,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처럼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욕구요인이 포함된다. 시각장애인의 환경적 특성은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로 가족환경을 파악하였으며, 가족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부양자 특성위주로 환경적 특성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환경적 특성에서 귀속요인에는 주부양자의 시각장애인과의 관계, 성별, 연령, 학력을 포함시켰으며, 자원요인에는 주부양자의 평균 월소득을 포함시켰다. 욕구요인에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도와 연관 있는 주부양자의 시각장애인 돌봄기간, 주부양자를 대체하여 시각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대체인이 있는지 여부,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주부양자가 주요소득자인지 여부, 그리고 주부양자가 느끼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을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다문항으로 측정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은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부양자는 시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을 주부양자로 명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박수경(1997)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합한 것으로 화장실이용, 샤워/목욕, 머리빗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손톱, 발톱 정리하기, 잠자리준비, 방청소, 세탁/옷정리 및 보관하기, 전화하기, 조리과 부엌용품사용하기, 집안에서의 이동, 대중교통이용, 은행이용, 취미나 여가활동하기, 이동을 위한 길 알기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3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는 Cronbach 알파는 0.94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 알파로 검증한 결과 신체적 부양부담의 신뢰도 수준은 0.922, 사회적 부양부담은 0.906, 정서적 부양부담은 0.886, 경제적 부양부담은 0.933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분류	변수 군	변수 요인 분류	변수명	변수설명 및 회귀와 로짓분석시 더미변수 코딩
독립	개인적 특성	귀속 요인	시각장애인 성별	생물학적 성, 남성=0, 여성=1
			시각장애인 연령	만연령
			시각장애인 학력	최종학력, 더미처리시 무학·초등학교졸업(기준변수), 중·고졸, 전문대졸이상인 세 변수로 재분류
			시각장애인 결혼상태	현재 결혼상태, 분석시 기혼·동거=1, 그 외는 0으로 재분류
		자원 요인	시각장애인 직업유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직업없음=0, 직업있음=1
		육구 요인	장애발생시기	시각장애가 발생한 시기, 더미처리시 태어날때부터·영아기(기준변수),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 성인기·중장년기·노년기인 세 변수로 재분류
			장애등급	장애판정 1등급부터 6등급까지임.
			중복장애여부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중복장애없음=0, 중복장애있음=1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나타냄. 1-3점으로 측정된 15개 문항 평균값(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임을 의미)
		환경적 특성	귀속 요인	주부양자 관계
	주부양자 성별			주부양자의 생물학적 성, 남성=0, 여성=1
	주부양자 연령			주부양자의 만연령
	주부양자 학력			주부양자의 최종학력, 더미처리시 무학·초등학교졸업(기준변수), 중·고졸, 전문대졸이상인 세 변수로 재분류
	자원 요인		주부양자 월소득	주부양자의 실제 월소득
	육구 요인		주부양자 돌봄기간	주부양자가 시각장애인을 돌보온 기간 년수
			주부양자의 돌봄대체인유무	주부양자가 아프거나 외출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보살피지 못할 경우 교대로 시각장애인을 돌볼줄 가족이나 친척, 이

			웃이 있는지 여부, 없다=0, 있다=1
		주부양자 건강상태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로 5점 척도.
		주부양자 주소득자 여부	주부양자가 시각장애인가구의 주요 소득자인지 여부, 주요 소득자임=1, 주요소득자가 아님=0
		주부양자 신체적 부양부담	육체적 피로, 수면장애,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나타난 부양 부담을 의미. 5문항. 1(전혀 아니다)~5(매우 많이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높음.
		주부양자 사회적 부양부담	사적시간활용, 외출 및 이웃과 접촉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난 부양부담을 의미. 6문항. 측정상동.
		주부양자 정서적 부양부담	의욕상실, 우울, 부양으로부터 회피, 죄책감, 고통, 짜증 등으로 나타난 부양부담을 의미. 7문항. 측정상동.
		주부양자 경제적 부양부담	공간적 부담, 의료비 부담, 경제활동부담, 부양비용 등으로 나타난 부양부담을 의미. 5문항. 측정상동.
종 속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음=1, 없음=0.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총 개월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일주일에 이용하는 시간수

4. 표본선정

본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시각장애인이다. 그러나 이들 전체에 대한 모집단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리적,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주지역에서 어떤 형식이든 장애인 단체, 재활서비스기관, 장애인복지관, 종교단체 등 시각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였다. 2009년 3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하였으며, 보완된 설문지로 2009년 7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조사를 총 286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화면접과 대면 면접을 함께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세가지 종속변수에 각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위한 연구로 종속변수는 세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여부는 이용함과 이용안함의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다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과 이용시간은 연속변수이므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때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 각 요인군들과 환경적 특성 각 요인군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18.0이 사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시각장애인 개인적 특성 분석

시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귀속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응답자의 60.3%가 남성이었고,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3.54세였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50.3%가 중·고등학교 졸업자이었으며, 기혼이나 동거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49.6%로 절반 정도 되었다. 자원요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39.0%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욕구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발생시기가 중요한데 태어날 때부터 또는 영아기부터 장애가 발생한 응답자는 31.9%, 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부터 장애가 발생한 응답자는 40.1%였으며, 성인기나 중·장년기, 또는 노년기부터 장애가 발생한 응답자도 28.0%나 되었다. 응답자의 80.7%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1등급에 속하여 응답 시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복장애를 가진 응답자는 11.3%로 많지는 않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평균은 3점만점의 2.33으로 응답자들이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시각장애인 개인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백분율)
시각장애인 성별	남자	170(60.3)
	여자	112(39.7)
시각장애인 학력	무학, 초등학교 졸업	59(21.0)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149(53.0)
	전문대졸 이상	73(26.0)
시각장애인 결혼상태	기혼, 동거	140(49.6)
	그 외	142(50.4)
시각장애인 경제활동여부	있다	110(39.0)
	없다	172(61.0)
시각장애인 장애발생시기	태어날 때부터, 영아기	89(31.9)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112(40.1)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78(28.0)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등급	226(80.7)
	2등급	21(7.5)
	3등급	16(5.7)
	4등급	7(2.5)
	5등급	5(1.8)
	6등급	5(1.8)
시각장애인 중복장애여부	있다	32(11.3)
	없다	250(88.7)
시각장애인 평균일상생활수행능력(표준편차)	2.33(0.4964)	
시각장애인 평균연령(표준편차)	43.54(17.34)	

2. 시각장애인 환경적 특성 분석

시각장애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의 귀속요인을 살펴보면 주부양자의 31.3%가 배우자, 31.0%가 부모였으며, 형제나 친척 등이 주부양자인 경우도 26.0%로 적지 않았다. 자녀가 주부양자가 되는 경우도 11.7%나 되었다. 주부양자의 평균연령은 48.71세로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평균연령인 43.54세보다 5세 정도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

자의 68.5%가 여자로 남자의 두 배 이상이 되었으며, 학력은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5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시각장애인 환경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백분율)
주부양자 관계	배우자	88(31.3)
	자녀	33(11.7)
	부모	87(31.0)
	형제, 친척, 기타	73(26.0)
주부양자 성별	남자	87(31.5)
	여자	189(68.5)
주부양자 학력	무학, 초졸	41(14.8)
	중, 고등학교 졸업	158(57.0)
	전문대 졸업 이상	78(28.2)
주부양자 돌봄대체인유무	있다	148(53.8)
	없다	127(46.2)
주부양자 건강상태	매우 좋다	32(11.6)
	좋은 편이다	116(41.9)
	그저 그렇다	84(30.3)
	나쁜 편이다	37(13.4)
	매우 나쁘다	8(2.9)
주부양자 주요소득자	주부양자 본인	161(57.7)
	다른 가족구성원	118(42.3)
주부양자 평균 연령*		48.71(11.86)
주부양자 평균 월소득*		160.59(136.62)
주부양자 평균 돌봄기간(년)*		14.55(11.99)
주부양자 평균 부양부담*	신체적 부양부담	2.44(1.107)
	사회적 부양부담	2.45(1.074)
	정서적 부양부담	2.43(1.002)
	경제적 부양부담	2.48(1.229)

* ()는 표준편차임

주부양자의 자원요인인 평균 월소득은 160만원 정도에 머물렀다.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인 시각장애인을 돌봐온 돌봄기간은 평균 14.55년으로 돌봄기간이 상당히 오랜 것을

알 수 있다. 주부양자를 대체할 돌봄대체인이 있는 경우가 53.8%로 절반정도 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는 돌봄대체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의 건강은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를 합한 비율이 53.5%로 절반이 되고,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를 합한 비율이 16.3%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가 가구의 주요소득자인 경우는 57.7%로 주부양자는 그다지 높지 않은 소득을 위한 일도 하면서 부양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 수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부양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은 각각 2.44, 2.45, 2.43, 2.48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와닿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특성 분석

응답 시각장애인의 47.7%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52.3%는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앞에서 응답자의 80.7%의 시각장애인이 1등급에 속하였던 것을 볼 때 1등급 중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평균이용기간은 13.64개월로 1년을 조금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평균이용시간은 18.10시간으로 하루에 2시간 조금 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특성

분류	빈도(백분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한다	134(47.7)
	이용 안한다	147(52.3)
활동보조서비스 평균이용기간(표준편차)	13.64개월(11.70)	
활동보조서비스 주평균이용시간(표준편차)	18.10시간(9.63)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로짓분석 모델의 정확도는 분류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데 로짓모델의 분류정확도는 75.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의 분류정확도

		예 측		
		이용한다	이용 안한다	분류정확%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한다	75	22	77.3
	이용 안한다	27	79	74.5
전체 퍼센트				75.9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유의확률 0.05이하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자원요인인 시각장애인직업 유무와 욕구요인인 장애등급이었으며, 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욕구요인인 주부양자의 돌봄기간과 신체적 돌봄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이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2.790배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등급이 1등급쪽으로 가면서 장애가 심해질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주부양자가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돌봄기간이 짧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신체적 부양부담이 클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분석)

변수군	변수 요인 분류	변수명	B	S.E.	유의확률	Exp(B)
개인적 특성	귀속 요인	시각장애인성별	0.196	0.398	0.622	1.217
		시각장애인연령	0.013	0.025	0.598	1.013
		시각장애인학력(중, 고졸)	-1.000	0.553	0.070	0.368
		시각장애인학력(전문대졸이상)	-0.540	0.658	0.412	0.583
		시각장애인결혼상태	0.383	0.536	0.475	1.467
	자원 요인	시각장애인직업유무	1.026*	0.467	0.028	2.790
	욕구 요인	장애발생시기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0.090	0.452	0.842	1.094
		장애발생시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0.214	0.569	0.707	0.807
		장애등급	-1.255*	0.412	0.002	0.285
		중복장애여부	-0.251	0.594	0.673	0.778
일상생활수행능력		-0.471	0.467	0.313	0.624	
환경적 특성	귀속 요인	주부양자관계(자녀)	-0.005	0.847	0.996	0.995
		주부양자관계(부모)	0.652	0.980	0.506	1.920
		주부양자관계(형제, 친척, 기타)	1.007	0.674	0.135	2.736
		주부양자성별	0.594	0.477	0.213	1.812
		주부양자연령	-0.002	0.027	0.939	0.998
		주부양자학력(중, 고졸)	-0.232	0.667	0.728	0.793
		주부양자학력(전문대졸이상)	0.159	0.781	0.839	1.172
	능력 요인	주부양자월소득	-0.001	0.002	0.706	0.999
	욕구 요인	돌봄기간	-0.044*	0.020	0.027	0.957
		돌봄대체인유무	0.349	0.416	0.401	1.418
		주부양자건강상태	0.206	0.269	0.443	1.229
		주부양자가 주소득자 여부	0.602	0.446	0.177	1.826
		신체적부양부담	1.097*	0.343	0.001	2.996
		사회적부양부담	-0.063	0.331	0.850	0.939
정서적부양부담		-0.021	0.333	0.950	0.979	
경제적부양부담	-0.286	0.239	0.231	0.751		

*) $p < 0.05$

참고: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학력의 기준변수는 무학·초등학교졸업, 장애발생시기의 기준변수는 태어날 때부터·영아기, 주부양자관계의 기준변수는 배우자임.

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가 투입된 순서는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그리고 환경적 특성 중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순이었다.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되었을 때를 model1으로 하였고, 점차 요인이 추가로 투입되어 마지막 모든 요인이 투입되었을 때를 model6로 하였다.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의 경우 다중공선성을 평가할 수 있는 VIF값은 모든 변수에서 최소값 1.155(중복장애여부)에서 최대값 6.779(주부양자-부모) 사이에 있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1부터 model6까지 model의 적합도를 보면 model1의 개인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되었을 경우만 유의확률이 0.077로 유의도가 낮았고, model2부터는 모든 model의 유의도가 0.05보다 낮아 model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model의 설명력은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된 model1이 0.025이었고, 거기에 자원요인이 투입된 model2는 0.067로 증가하였고, 욕구요인이 투입된 model3는 0.105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환경적 특성 중 귀속요인이 추가되면 설명력이 0.118로 증가하였다가 자원요인이 추가되면 0.114로 감소한 후 욕구요인이 추가되면 0.217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의 설명력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model의 설명력의 증가분을 볼 때 증가분이 가장 큰 것은 model5에서 model6간의 차이로 약 10%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을 설명하는 데는 환경적 요인 중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원요인, 욕구요인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3까지 중요하게 나타나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유무는 주부양자의 특성이 투입되는 model4부터 중요하게 않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을 보면 시각장애인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귀속요인의 성별, 욕구요인의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욕구요인인 돌봄대체인유무, 주부양자 건강상태, 주부양자 신체적 부양부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장애등급이 1등급으로 중해질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길었다. 또한 주부양자의 돌봄대체인이

표 7.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위계적 회귀분석)

변수군	변수 요인 분류	변수명	model1 β	model2 β	model3 β	model4 β	model5 β	model6 β	
개인적 특성	귀속 요인	시각장애인성별	0.123	0.127	0.133	0.132	0.136	0.150(*)	
		시각장애인연령	0.192(*)	0.212(*)	0.165	0.003	0.007	0.111	
		시각장애인학력(중, 고졸)	-0.031	-0.119	-0.065	-0.082	-0.083	-0.126	
		시각장애인학력(전문대졸이상)	0.015	-0.108	-0.071	-0.040	-0.046	-0.132	
		시각장애인결혼상태	-0.027	-0.099	-0.084	-0.171	-0.170	-0.171	
	자원 요인	시각장애인직업유무		0.245(*)	0.212(*)	0.163	0.165	0.151	
		육구 요인	장애발생시기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0.043	-0.043	-0.044	-0.061
			장애발생시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0.032	-0.044	-0.044	-0.096
			장애등급			-0.164(*)	-0.161(*)	-0.164(*)	-0.217(*)
			중복장애여부			-0.018	-0.032	-0.029	-0.023
일상생활수행능력				-0.144	-0.122	-0.124	-0.010		
환경적 특성	귀속 요인	주부양자관계(자녀)				0.022	0.023	-0.006	
		주부양자관계(부모)				-0.293	-0.300	-0.226	
		주부양자관계(형제, 친척, 기타)				-0.049	-0.049	-0.073	
		주부양자성별				0.084	0.093	0.081	
		주부양자연령				-0.058	-0.058	-0.095	
		주부양자학력(중, 고졸)				-0.005	-0.016	-0.082	
		주부양자학력(전문대졸이상)				-0.055	-0.070	-0.115	
	자원 요인	주부양자월소득					0.036	0.081	
		육구 요인	돌봄기간						-0.108
			돌봄대체인유무						0.156(*)
			주부양자건강상태						0.181(*)
			주부양자가 주소득자여부						-0.037
			신체적부양부담						0.597(*)
사회적부양부담							-0.017		
정서적부양부담							-0.207		
경제적부양부담						-0.034			
adjusted R ²			0.025	0.067	0.105	0.118	0.114	0.217	
adjusted R ² 의 변화량			-	0.047	0.038	0.013	-0.004	0.103	
모델 유의확률			0.077	0.003	0.001	0.001	0.002	0.000	

*) p < 0.05

참고: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학력의 기준변수는 무학·초등학교졸업, 장애발생시기의 기준변수는 태어난 때부터·영아기, 주부양자관계의 기준변수는 배우자임.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체적 부양부담이 클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길었다.

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가 투입된 순서는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그리고 환경적 특성 중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순이었다.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되었을 때를 model1으로 하였고, 점차 요인이 추가로 투입되어 마지막 모든 요인이 투입되었을 때를 model6로 하였다.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의 경우 다중공선성을 평가할 수 있는 VIF값은 모든 변수에서 최소값 1.159(중복장애여부)에서 최대값 6.763(주부양자-부모)사이에서 있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1부터 model6까지 model의 적합도를 보면 model1의 개인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되었을 경우만 유의확률이 0.35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model2부터는 모든 model의 유의도가 0.05보다 낮아 model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model의 설명력은 개인적 특성 중 귀속요인만 투입된 model1이 0.0003이었고, 거기에 자원요인이 투입된 model2는 0.053으로 증가하였고, 욕구요인이 투입된 model3는 0.099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환경적 특성 중 귀속요인이 추가되면 설명력이 0.139로 증가하였다가 자원요인이 추가되면 0.135로 감소한 후 욕구요인이 추가되면 0.186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의 설명력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model의 설명력의 증가분을 볼 때 증가분이 가장 큰 것은 model5에서 model6간의 차이로 약 5.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외 model간의 설명력의 변화량 차이도 4.0%에서 5.0%수준으로 model5와 model4의 설명력의 변화량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을 설명하는 데는 이용기간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인 중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시각장애인의 자원요인, 욕구요인, 주부양자의 귀속요인도 주부양자의 욕구요인과 설명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위계적 회귀분석)

변수군	변수 요인 분류	변수명	model1 β	model2 β	model3 β	model4 β	model5 β	model6 β	
개인적 특성	귀속 요인	시각장애인성별	0.020	0.027	0.012	-0.004	-0.008	-0.007	
		시각장애인연령	0.027	0.052	-0.032	-0.352(*)	-0.356(*)	-0.225	
		시각장애인학력(중, 고졸)	-0.006	-0.100	-0.064	-0.065	-0.064	-0.071	
		시각장애인학력 (전문대졸이상)	-0.031	-0.166	-0.137	-0.099	-0.095	-0.113	
		시각장애인결혼상태	0.148	0.070	0.075	0.112	0.111	0.138	
	자원 요인	시각장애인직업유무		0.265(*)	0.222(*)	0.194(*)	0.192(*)	0.167(*)	
	육구 요인	장애발생시기(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0.065	0.066	0.068	0.054
		장애발생시기(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0.067	0.078	0.078	0.045
		장애등급				-0.197(*)	-0.188(*)	-0.187(*)	-0.218(*)
		중복장애여부				-0.028	-0.018	-0.020	-0.030
일상생활수행능력					-0.127	-0.080	-0.079	0.038	
환경적 특성	귀속 요인	주부양자관계(자녀)				0.206(*)	0.204(*)	0.204(*)	
		주부양자관계(부모)				-0.234	-0.228	-0.056	
		주부양자관계 (형제, 친척, 기타)				0.203(*)	0.203(*)	0.269(*)	
		주부양자성별				0.123	0.115	0.128	
		주부양자연령				0.170	0.171	0.111	
		주부양자학력(중, 고졸)				-0.067	-0.058	-0.095	
		주부양자학력(전문대졸이상)				-0.042	-0.030	-0.078	
	자원 요인	주부양자월소득					-0.028	0.016	
	육구 요인	돌봄기간						-0.127	
		돌봄대체인유무						-0.026	
		주부양자건강상태						0.035	
		주부양자가 주소득자여부						0.119	
		신체적부양부담						0.335(*)	
사회적부양부담							0.085		
정서적부양부담							-0.108		
경제적부양부담						-0.085			
adjusted R ²			0.003	0.053	0.099	0.139	0.135	0.186	
adjusted R ² 의 변화량			-	0.050	0.046	0.040	-0.004	0.051	
모델 유의확률			0.359	0.011	0.001	0.000	0.000	0.000	

*) p < 0.05

참고: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학력의 기준변수는 무학·초등학교졸업, 장애발생시기의 기준변수는 태어날 때부터·영아기, 주부양자관계의 기준변수는 배우자임.

모든 요인이 다 투입된 model6을 보면 시각장애인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자원요인인 시각장애인의 직업유무와 욕구요인의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귀속요인인 주부양자관계(자녀여부, 형제나 친척이나 기타여부)와 욕구요인인 주부양자 신체적 부양부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장애등급이 1등급으로 중해질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또한 주부양자가 자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형제나 친척이나 기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체적 부양부담이 클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들에 속하는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중에 욕구요인인 장애등급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등급1등급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자원요인인 시각장애인의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속요인 중에서는 성별이 유일하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환경적 특성 중에서도 욕구요인인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클수록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할 확률이 높고, 이용기간도 길고,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 외에 환경적 특성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인 돌봄기간, 돌봄대체인 유무,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귀속요인인 주부양자가 자녀인지 여부와 형제·친척·기타여부였다. 돌봄기간이 짧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 돌봄대체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길었다. 그리고 주부양자가 시각장애인의 자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형제·친척·기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시각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반응하며 형평성있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분석모델에서 이러한 욕구요인의 설명력도 가장 컸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1등급에 한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의 성격상 장애등급으로 구성된 욕구요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형평성은 “제한적 형평성”이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부양자의 욕구요인인 돌봄기간, 돌봄대체인 유무,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기간이 짧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 돌봄대체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혹시 돌봄기간이 긴 경우는 이미 돌봄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간의 관계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기간이 독립변수, 건강상태가 종속변수로 인과관계가 바뀐 것으로 봐야할지도 모른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이 길면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원요인 시각장애인의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 이용시간이 많은 것을 볼 때 직업활동을 하는데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또 직업활동을 하면 소득이 있을 것이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

각장애인의 경우 직업은 어쩌면 욕구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활동보조서비스의 형평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근거는 활동보조서비스가 1등급에게만 제공됨으로써 장애등급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이용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있다. 따라서 형평성을 높이려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외에 좀 더 세심하게 장애인의 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 평가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찰을 통한 정보수집의 제한, 의사소통에 있어 정안인과는 상호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 또한 주변 환경이 새롭게 변화될 경우, 시기능 손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안인과는 다른 일정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보행상의 제약으로 출퇴근 및 작업장이나 직장내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작업수행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작업속도(speed)가 느린 특성을 보인다(이미정 외, 2009). 따라서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능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장애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대상자 선정과 판정 등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나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주부양자는 신체적 부양부담이 클 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정서적 부양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양부담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양자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도 주부양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측면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주부양자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에까지 반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직업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 이용시간도 많게 나오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직업이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더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주부양자가 가족의 주소득자가

많고 주부양자의 월소득도 월 160만원 수준이 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에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쓰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직업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반영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정시간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유형별 사용을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시각장애인고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효성 외(2007)의 시각장애인연구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헬스키퍼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출·퇴근시 활동보조인 등을 통한 편의지원을 응답대상자 중 71.1%가 지적하였으며, 근무지내 활동보조인(도우미)지원을 60.2%가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모집단 확보의 어려움, 접근과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작위표집을 사용하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작위표집이 아닌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통계결과에 유의미도를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경우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다른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부 요인들과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다. 시각장애인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돌봄대체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험설계나 종단 연구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강우진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이며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1972eugene@ggwf.or.kr)

박경숙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이며,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spark@kyonggi.ac.kr)

참고문헌

- 강유진, 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 복지연구, 28, pp.255-294.
- 김광석(1994). 시각장애인 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경미(2004).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pp.383-408.
- _____(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53-274.
- 김슬기, 전병진, 김동성(2008).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3), pp.87-98.
- 김용득(2002). 장애개념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1, pp.157-182.
-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pp.283-307.
- 박수경(1997). 산업재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보건복지부(2010a).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b). 2009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윤현숙(2001). 노인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pp.141-161.
- 이가옥, 이미진(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pp.113-124.
- 이기영, 최송식, 박현숙, 임현정(2010). Andersen과 Newman모델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pp. 257-278.
- 이미정, 김영미, 박혜경(2009). 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익섭, 김경미, 김동기(2007). 활동보조서비스 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pp.117-143.

- 이익섭, 김경미, 김동기, 김미옥, 최윤영(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서울: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 이익섭, 최지선, 김동기(2008).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ICF 분석틀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pp.105-128.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pp.299-322.
- 이혜원(1995). 서울시 거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pp.140-156.
- 이효성, 홍자영, 염희영, 현정훈(2007).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안정 지원방안 연구-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제공사례를 중심으로-.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임연옥, 윤현숙(2009).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단연구-서울과 춘천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pp.1063-1085.
- 전정식(2008).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pp.31-95.
- 최승아(2009).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0(3), pp. 213-242.
- Acree, M. W.(2002). *The fit between low-income elders and consumer-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forming the development of more adequate Medicaid-funded institutional care*. Ph.D.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VA.
- Al-Rashed, A. M.(2003). *Independent providers versus professional agency providers for home-bas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SC.
- Andersen, R. M.(2008). National Health Surveys and the Behavioral Model for Health Services Use. *Medical Care*, 46(7), pp.647-653.
- Andersen, W., Norton, E. C., Dow, W. H.(2003). Medicare maximization by state Medicaid programs effects on Medicare home health. *Medical Care Research Review*, 60, pp.201-222.

- Antonovsky, A.(1972). A model to explain visits to the doctor: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case of Israe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4). pp.446-454.
- Askheim, O. P.(1999). Personal assistance for disabled people - the Norwegia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 pp.111-119.
- _____ (2003). Personal Ass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Impairments: experiences and dilemmas. *Disability & Society*, 18(3), pp.325-339.
- Beatty, P., Adams, M., O'Day, B.(1998). Virginia's consumer-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rogram: A history and evaluation. *American Rehabilitation*, 24, pp.31-35.
- Benjamin, A.(2001). Consumer-Directed Services At Home: A New Mod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ealth Affairs*, 20(6), pp.80-95.
- Benjamin, A., Matthias, R., Franke, T.(2000). Comparing consumer-directed and agency models for providing supportive services at home. *Health Services Research*, 35, pp.351-366.
- Caldwell, J.(2007). Experiences of families with relative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consumer-directed support program. *Disability & Society*, 22(6), pp.549-562.
- Chait, M.(2007). *An exploratory study about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Survey of their views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sexuality education, and sexual expression*. Dissertation for Doctor of Educ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 Clark, M. J., Hagglund, K. J., Sherman, A. K.(2008).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consumer-directed and agency-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grammes among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0(9), pp.689-695.
- Coughlin, T. A.(1992). Home care for the disabled elderly: predictors and expected costs. *Health Services Research*, 27(4), pp.453-477.
- Dejong, G., Batavia, A., McNew, L.(1992).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of

- personal assistance in national long-term care policy. *Generations*, 8, pp. 89-95.
- Flanagan, S.(2005). *Consumers' perceptions of consumer-directed personal assistance and intermediary services: Eight states' experiences*.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The Heller School for Social Policy and Management, Waltham, MA.
- Glanz, K., Rimer, B. K., Lewis, F. M.(2002).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Wiley & Sons.
- Glazier, R. E.(1999). *Preference for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ennsylvania's attendant care program*.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The Florence Heller Graduate School for Advanced Studies in Social Welfare, Waltham, MA.
- Hagglund, K., Clark, M., Mokolke, E., Stout, B.(2004).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Neuro Rehabilitation*, 19, pp.115-120.
- Kadushin, G.(2004). Home health care utiliz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for social work. *Health & Social Work*, 29(3), pp.219-244.
- LaPlante, M. P., Harrington, C., Kang, T. W.(2002). Estimating Paid and Unpaid Hour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rovided to Adults Living at Home. *Health Services Research*, 37(2), pp. 397-415.
- LaPlante, M. P., Kaye, H. S., Kang, T. W., Harrington, C.(2004). Unmet Need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stimating the Shortfall in Hours of Help and Adverse Consequences. *Journal of Gerontology*, 59B(2), pp.98-108.
- Lyons, K. S., Zarit, S. H., Townsend, A. L.(2002). Families and formal service usage: stability and change in patterns of interface. *Aging & Mental Health*, 4(3), pp.234-243.
- Muramatsu N., Campbell, R. R.(2002). State Expenditures on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and Use of Formal and Informal Personal Assistance: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pp.107-124.

Pulola, T.(1972). A systems approach to health and health policy. *Medical Care*, 10(5), pp.373-379.

Rosenstock, I.(1974).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Soldo, B. J., Agree, E., Wolf, D.(1989). The balance between informal and formal care. In Ory, M. G., Bond, K.(Eds.), *Aging and health care: Social science and policy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Squillace, M. R.(2000).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choice and decision making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rrogate decision mak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Sullivan, J. L.(2007). *Understanding Variation in Personal Assistance Use: The Impact of State Attributes Affecting Provision of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The Factors Influenc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Kang, Woo Ji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Park, Kyung Sook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

Keywords: Visually Impaired Peopl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ersen's Behavior Model, Independent Living Paradigm